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II*

-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

A Study on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Bibliotherapy Practices II

한 윤 옥(Yoon-Ok Han)**

목 차

- | | |
|-------------------|--------------------------------|
| 1. 서론 | 3. 1 상담사례에 나타난 상황조사 및 분석 |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 나타난 상황조사 및 분석 |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설정과 분류체계 |
| 2. 상황별 독서목록 | 4. 1 상황설정과 분류기준 분석결과 |
| 2. 1 상황에 대한 정의 | 4. 2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설정과 분류체계 안 |
| 2. 2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 | 5. 결론 및 제언 |
| 3. 상황설정과 분류기준 조사 | |

초 록

본 연구는 독서치료의 기본적 도구인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후속 연구이다. 상황별 독서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담사례, 공공도서관용 독서치료 목록집, 독서치료 관련 교육기관의 강연계획표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치료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이것을 십진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였다. 분류에 적용된 기준은 전편 논문에서 제시한 연령, 성별, 공간 및 관계이며, 소아용, 청소년용, 성인용, 노인용 상황분류 체계 안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ist librarians in developing a bibliographic tool for bibliotherapy practices. Bibliotherapy is a form of psychotherapy in which carefully selected reading materials are used to assist a subject in solving personal problems or for other therapeutic purposes. However, bibliotherapy has rarely been either studied or practiced in Korea. For a bibliographic tool which is called 'situational reading list', a client situation has to be classified by the factors of biological, place and personal relations, type of stress or symptoms. This study, in this regard, examined related recent researches in the field of psychology or psychoanalysis. Main conclusions made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lassify a client situation in a bibliographic tool are age, sometimes sex, home background, 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ssues. This study also suggest the scheme of situatio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There are the general class, child class, teenager class, adult class and senior class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키워드: 독서, 독서치료, 상황, 상황별 독서목록, 상황분류
Reading, Bibliotherapy, Situational Reading List, Situation Classification System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hanyoon@chol.com)

논문접수일자 2004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9월 15일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2-3년 사이에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독서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02년에 경남의 창녕도서관이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 모음>을 펴냈고, 2003년에는 울산남부도서관이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을 꾸며냈다. 이들 도서관은 목록에 올라있는 '치료하는 책'을 별도의 서가에 비치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울산 남부도서관과 경남의 양산도서관, 경기도의 성남도서관은 도서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및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과정에서 독서치료 관련 강좌가 매 학기 개설되고 있으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에서는 대학원생, 교수, 사서들이 모여서 정신분석학 관련 책들을 읽고 토론하며, 문헌정보학 입장에서 독서치료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과정에서도 독서치료 강의가 매년 개설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에서 그동안 생산된 석박사 학위논문 몇 편은 한울출판사에서 '독서치료연구시리즈'로 출판되었다.¹⁾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와 기타 학술지에도 독서치료 관련 논문이 계속 실리고 있다.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은 비단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쪽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치료사협회>, <독서치료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민간의 교육기관들도 열성적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독서치료사' '독서치료전문가' '아동독서치료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분포는 전국적이다. 한편, 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참여자 자신의 문제 해결과 치유를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대전의 이영애가 운영하는 신성회가 대표적이고, 이영식목사의 독서치료 홈페이지 'Bibliotherapy', 곰너곰너 등 독서치료 관련 인터넷 카페만도 1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황금숙 2003, 203-213). 이런 것만 해도 과거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은 이들의 관심이 독서치료에 쏠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독서치료(bibliotherapy)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들여다 보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가슴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독서치료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여자들을 골라 21명을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된 이 며칠 사이 언론에서는 온통 왜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지 집중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엽기살인 키운 타인의 벽"이라는 제목 아래 게재된 한 정신과 의사의 글(동아일보 2004.7.20)은 사건의 본질을 현대사회의 특징적 흐름 속에

1) 신주영 지음.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송영임 지음. <독서치료와 공공도서관 서비스>, 김민주 지음.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서치료>, 김경숙 지음.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 김수진 지음.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독서치료>.

간한 현대인의 소외로 이해하고 있었다.

“....범인은 외로운 사립이었다.중략...어찌 보면 그런 마음은 누구나 한 자락씩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현대사회의 정서적 특징에 다를 아니다.중략....괜히 남의 삶에 개입했다 낭패보는게 싫은 원룸생활, 개인적 삶의 총아인 휴대전화, 그의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PC와 인터넷, 이 사건과 연루된 이 시대의 아이콘들은 생경한 것이 아니다. 자발적 무관심, 개인화, 고립감, 외로움을 상징하며 주변에 항상 있는 것들이다. 이런 고립감의 상징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한쪽 구석 좀 더 소외된 곳에서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이라는 용납될 수 없는 괴물이 태어나게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중략....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음속의 열어보고 싶지 않던 외로움과 단절의 고통을 열어봐야 한다. 그러면 어느새 내 주변의 타인의 고통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며, 그가 외로움의 끝에 서지 않도록 도울 길이 열릴 것이다. 거창한 사회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보다 보고 싶지 않아 덮어두었던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대인에게 필요하며, 그것이 추악한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할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보고 싶지 않아 덮어두었던 내 마음 속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 글 속의 말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통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독서치료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것이 거창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보다 나은 사회의 정신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말은 만약 그 피의자가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잔혹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독서치료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울산남부도서관, 부산남구도서관 등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소식은 이처럼 복잡하고 심각한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문제를 도서관의 책을 통하여 다스려 보겠다는 도서관계의 자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반갑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도서관계에 아직 독서치료에 대한 방법론적 도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독서치료는 사서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책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책을 어떤 상황에서 읽도록 안내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에서의 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김정근 2004a. 148-9), (김정근 2004b, 143).

“....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치료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서행위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황에 맞는 치유서이다. 좋은 치유서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에서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적

절한 치유서를 만난 날의 모임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따른다....”

이렇게 볼 때 독서치료에서 사용하게 될 책을 미리 예상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책을 서지작업화 시켜 놓는다면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도구가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위한 선정도서목록이나 추천도서목록, 양서목록은 이용자의 지식을 늘려주고 교양을 높여주고 인격을 닦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작성되지만 독서치료를 위한 책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책이므로 책의 내용이 좋고 훌륭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 책이 그 사람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독서치료용 도서목록을 만들려면 독서치료 대상자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갖고 있으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것을 일정한 체계아래 분류한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서지작업화 시켜야 하고, 이것이 곧 독서치료의 도구인 상황별 도서목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적절한 상황별 도서목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독서치료 교육기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한된 범위의 목록을 작성하였지만 상황에 대한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들을 체계적인 분류시스템 아래 제시함으로써 상황별 도서목록을 전국적으로 계획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지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빈도수에 따라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보편적인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전화, 청소년 상담실, 종교기관 상담실 등에서 이루어진 상담사례를 조사 분석할 것이며, 이와 함께 최근의 연구논문과 공공도서관에서 만든 독서치료용 도서목록 및 관련 교육기관의 강의계획표 등을 조사하여 독서치료 예상 상황을 조사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그 상황들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위에서 조사 분석된 예상 상황을 도서관에서의 자료 분류원리를 적용하여 배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차후 작성될 상황별 도서목록의 상황설정 분류체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목록의 상황설정과 분류체계가 제시되면 후일 독서치료

에 필요한 치유서 개발과 서지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위한 각 도서관간의 협동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상황별 독서목록

2.1 상황에 대한 정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이 기존의 추천도서목록이나 양서목록, 혹은 선정도서목록 등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독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추천도서 목록이나 양서목록들이 독자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이 좋은지 나쁜지만을 생각하여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전제 아래 양서를 선정한 것이라면 상황별 독서목록은 좋은 책 나쁜 책보다는 독자의 입장이나 형편을 먼저 고려한 후 바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목록으로 작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독서목록의 상황설정 기준이나 목록에 포함될 도서 선정 기준에 관한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상황별 독서목록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독서목록 - 아동 및 청소년용-(한윤옥 외 1999)에서는 '독서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여 "어떤 사람이 책을 읽거나 읽고자 할 때 처해 있는

정신 및 신체적 상태나 조건 혹은 사회적인 입장이나 여건"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작성된 상황별 독서목록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할 때의 주변적 여건이나 심리 상태 혹은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보다는 훨씬 평이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치료를 위한 책읽기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이므로 단순한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내재적 자아의 특성, 현재 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점에 사람들이 무엇에 의하여 갈등 상황을 겪게 될지 추론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은 앞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상황별 독서목록에서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때 고려하게 되는 독자의 조건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영유아기부터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형성된 내재적 자아 및 심리가 현재적 상태로 연결되면서 표출되는 심각한 정신적 갈등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처지"를 가리킨다.

2.2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미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서지통정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독서치료의 특성과

관련지어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황별 독서목록은 독서치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문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는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의 실효적 통정을 실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패트릭 윌슨(Patrick Wilson)은 서지통정을 일종의 힘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지식의 종류에 대한 개념 즉 주제 그 자체에 대한 지식과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입수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문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수없이 많은 문헌들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서지통정에 대한 종래의 입장과 그의 철학적 사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인식을 발전시켰다.

윌슨의 주장에 의하면 도서관에서의 서지통정에는 기술적 서지통정과 실효적 서지통정이 있다. 지금까지 서지통정이라는 이름아래 도서관이나 서지작성자가 준비해 온 것 중의 대부분은 기술적 통정에 해당된다. 즉 어떤 텍스트를 기술하고, 기술항목 중에서 저작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는 저자명, 서명, 주제명 등을 접근점으로 추출하여 그것을 배열, 색인, 상호참조 등에 의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통상적인 서지통정이었다. 반면에 사람들이 문헌을 읽을 때의 목적과 그 텍스트가 읽는 사람에게 미치는 가치까지 염두에 둔 서지통정을 실효적 통정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문헌을 읽을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예비지식 또는 노하우를 얻고 싶다는 등의 목적의식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텍스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실효적 통정이며, 이것은 도서관이나 서지작성자가 전통적으로 행하여 온 기술적 통정에 비하여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 왜냐하면 기술적 통정이 완전히 가치중립적인 것에 반하여 실효적 통정에는 가치판단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통정은 독자보다는 텍스트의 기술적 특성과 서지학적 특성, 내용 및 그들 텍스트간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기술하는데 치중하지만 실효적 통정에서는 개개 이용자의 목적을 알고, 제공하는 텍스트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텍스트가 정확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그 특정이용자의 상황에 비추어 평가해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용자가 놓여져 있는 특정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네모도 아키라 저, 조재순 역 2003, 82-94).

이러한 윌슨의 실효적 통정의 기본적 원리가 적용된 것이 바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서지 즉 장서목록, 주제별 목록, 선정도서목록이나 양서목록 등은 철저하게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기술적 통정을 위한 목록이지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기술대상이 되는 그 책의 서지적 사항보다는 그 책이 독자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지작성자의 가치판단이 철저히 개입되는 실효적 통정을 위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독서치료용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술대상이 되는 책은 책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책인가 서지적 사항은 어떤가 하는 것보다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서 동일화 과정을 겪고,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²⁾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독서목적에 가장 잘 맞는 것을 끄집어 내어 제공하는 실효적 서지통정을 실현하는 목록(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 2003, 92)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독서치료를 위한 실효적 서지통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별 독서목록에는 기술적 서지통정 도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인적 요소가 개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문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는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실효적 통정은 인적 원조로서의 참고봉사의 역할이다. 이것은 서지를 포함함으로써 요구자에게 필요한 문헌을 제공하는 '서지적 원조자' (bibliographical aid)와는 구별되는 '서지 컨설턴트' (bibliographical consultant)의 역할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서지에 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저작이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 누구에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다. 반면에 후자는 서지적 질문에 대하여 질문자의 상황에 적합한 답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지컨설턴트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읽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서지적, 주제적 지식을 질문자의 관심, 목적, 능력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억에 바탕을 두는 서지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구로 유추한다면 전에 읽은 것이 서지대상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관심이나

읽었을 때의 태도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텍스트가 달라진다. 그 기억하고 있는 범위는 수록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가 갖는 과거의 독서경험 전체 속에서 그의 독서 정도의 깊이나 범위, 그 분야의 기초적 지식, 질문의 파악방법 등은 서지도구에 적용되는 선택원리나 기재단위, 기재사항, 배열위치의 결정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사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 105-107).

상황별 독서목록은 독서치료 과정에서 서지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다. 독서치료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이는 다른 사람 아닌 독자 자신이고, 그것을 돕는 이는 책이며 독서행위 자체이다(김정근 2004a, 148-149). 그리고 독서치료는 책이 정신과의사나 심리치료사의 상담기능을 일정 정도 대행해주는 데서 생기는 것(김정근 2004c, 58-61)으로서 독서치료를 진행하는 사람이 기억하거나 혹은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읽은 책에서 독서치료 해당자의 상황에 따라 읽도록 권하는 책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보면 독서치료는 이용자의 여러 조건이나 상황을 알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상황별 독서목록은 작성하는 사람들의 독서 정도의 깊이, 범위, 지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를 알지 않고는 작성될 수 없다. 즉 사서가 단순히 주제별로, 혹은 어느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이 책이 효과

2) 독서치료는 독서치료 대상자와 작품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일화(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3단계에 걸친 기본적인 원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 있을 것이라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관점을 갖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상황별 도서목록은 결국 서지컨설턴트나 다름이 아니다.

셋째, 상황별 도서목록은 '가장 좋은 책'들의 모음이고, 그 책들은 단행본과 같은 출판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물리적인 단위보다는 내용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상황별 도서목록은 도서치료를 위한 서지 도구이다. 서지를 작성할 때 대상영역과 수록범위가 확정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전체 속에서 수록될 자료를 선별해야 하는 선택원리가 필요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대상자료의 수준과 신뢰도 등이다. 이에 대하여 실효적 서지통정의 개념을 제시한 패트릭 윌슨의 질적기준에 덧붙여 베이츠는 네가지 선택원리를 제시하였다. 그의 네가지 선택원리중에 상황별 도서목록에 적용되는 원리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과 내용으로 구별되는 서지단위이다(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 98-99).

독서치료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독서치료를 위한 책을 개발하여 목록을 만드는데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김정근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자료를 발굴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치유모임에서 적용하고 목록을 만드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산에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풀 가운데서 약초를 분간하고 캐내어 분류하는 작업과 비슷하다. 실제로 나는 방학이 되면 '약초 캐러 간다'는 말을 하곤 한다...” (김정근 2004d, 141).

이것은 패트릭 윌슨의 실효적 서지통정 원리와 함께 베이츠의 선택원리를 적용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

넷째, 상황별 도서목록의 의의는 서지의 개별화에 있다. 서지의 개별화란 어느 서지통정이 대상으로 하는 독자를 최대한 한정하는 것으로서 '전형적 이용자'를 설정하지 않고, 개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문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한정된 주제 아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특수장서를 구축하고 이용 자체는 이용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 109). 이것은 바로 도서치료에서의 과정과 같고, 상황별 도서목록의 활용방향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도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은 바로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개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서지이며, 그 책들을 모아 별도의 장서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 자체는 그들에게 맡긴다. 별도의 도서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구축된 장서 중에 해당되는 도서를 상황별로 뽑아 함께 읽고 경험을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밟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도서치료의 일반적인 봉사형태이며, 현재 울산남부도서관, 부산남구도서관, 창녕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3. 상황설정과 분류기준 조사

3.1 상담사례에 나타난 상황조사 및 분석

독서치료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책을 읽으

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게끔 하는 과정이고,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상황별로 묶어 제시하는 서지이다. 따라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선결조건은 오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독서치료를 위한 목록에 상황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은 어떤 것들이며, 그들은 어떤 유형적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한윤옥은 선행연구(한윤옥 2003, 11-13)에서 청소년상담원이나 여성의 전화 등에 나타난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묶어 제시하였다. 요컨대 이들 기관에서의 상담내용이 결국 오늘 한국사회의 여성 혹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제별 항목구분은 서울여성의 전화와 청소년상담원에서의 2001년 상담 통계를 보고 정리한 것인데 ①, ②는 전자의 경우이고 ③, ④는 후자의 경우이다.

- ①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성폭력(강간, 성추행), 외도, 부부갈등, 시집갈등, 미혼여성, 법률상담, 주부 자신의 문제, 직장내 폭언폭행
- ②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 가출유형, 윤락, 저소득 모자, 취업, 이혼
- ③ 가정, 학습, 진로, 취업, 교우, 이성, 성, 비행, 약물남용, 성격, 정신건강, 여가활동, 제도개선
- ④ 가정, 친구, 이성, 대인관계, 학업, 진로 및 취업, 성격 및 정신건강, 성, 비행 및

약물문제

이 자료에서 보면 여성과 청소년 모두 가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가정폭력과 함께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으며, 청소년은 가정의 문제와 함께 학업과 진로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 상담실(YMCA)의 2003년도 상담실적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의 상담내용을 11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가족, 비행, 학업/학교부적응,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기타상담, 단순정보제공 등인데 가장 많이 상담을 한 것이 대인관계(1,555건)에 대한 것이고, 다음이 학업/학교부적응(1,083건)으로 나타났다. 진로(486건), 성격(431건) 등에 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다(2003, 성남시청소년상담실 자료집 27).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의 사이버상담실인 자비 24를 조사한 것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자비 24(<http://www.jabi24.org/>)의 상담사례모음방에서는 상담 들어온 각종 고민거리들을 내용에 따라 실행상담, 성격/정서, 성/이성, 가정생활, 교육/학업/진로, 대인관계 등 6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04년 8월까지 등록된 내용을 범주별로 상담제목, 각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성별과 연령대, 직업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조회한 회수에 따라 정리하면 <부록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것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놓고 각각 범주화 시킨 후 조회한 횟수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에서의 관계로서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2,800회 이상을 상회하

고 있고, 대인관계가 역시 2,100회 이상이다. 강간이나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외도 등의 문제와 미혼모, 저소득 모자의 문제, 이혼이나 위자료 문제로 인한 법률상담,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의식도 노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상황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누군가와의 관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2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 나타난 상황조사 및 분석

독서치료용 서지에 제시될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생산된 독서치료 관련 연구논문이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목록, 교육기관에서 제시한 목록 등을 분석한다.

1) 선행 연구에서의 목록 분석

한운옥(한운옥 2003, 11-13)은 국내외의 독서치료용 문헌에서 제시한 독서치료 대상자의 상황이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생활의 대처, 죽음, 이질성, 이혼, 가난, 관계, 자아관 ② 가족관계, 책임, 이기심, 성격과 개성, 자율성, 용기, 새로운 가정과 친구들에 대한 적응, 병과 신체장애의 인정, 입양아, 두려움, 타인의 용납, 자아의 용납, 신체적 특성, 죽음 ③ 외모(체격, 장애, 성장 및 발달), 감정 및 성격(수줍음, 자아개념, 남을 돌보기, 행동, 책임, 거짓말, 두려움, 협동, 우정, 죽음),

가족관계(가정 내 문제, 별거와 이혼, 세대 차, 사랑과 관심), 사회경제적 문제(인종 및 민족관계, 전쟁과 평화, 이사, 부적응, 마약과 알코올) ④ 역할모델, 복합가정, 별거와 이혼, 아동학대, 대리보육, 입양, 아동기의 두려움 ⑤ 약물중독, 변화와 대응, 폭력적인 가정과 역기능 가정, 부모 역할, 개인 성장, 심각한 질병, 사회관계, 이혼과 복합가정 ⑥ 이혼과 재혼, 역기능 가정, 부모역할, 자기개발, 심각한 질병, 약물의존장애 ⑦ 자기 수용, 인간관계, 대인관계, 대화법, 상담 심리학, 내적 치유, 우울증, 성인아이,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혼전 상담, 배우자 선택, 행복한 가정생활, 성문제, 이혼,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 심신장애아를 둔 부모 및 기타 ⑧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성폭력, 시설 이동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 자폐아, 우울증, 스트레스³⁾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 상황을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해 보면 나 자신에 관한 사항, 나와 타자의 관계로서 나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혹은 가정의 문제, 나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나의 상황으로 자율성, 용기, 두려움, 이기심, 자기수용, 개인성장 등의 정서나 가치관 문제, 약물중독이나 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질병과 죽음 등이 있다. 나를 둘러싼 공간적 환경에서 오는 문제로 새 가정, 복합가정, 역기능가정, 폭력가정, 빈곤가정 등이 있다. 나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친구, 대인관계, 사회와의 관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어

3) 송영임이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국내외의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제시한 상황을 연구자가 주제명만 뽑아 나열하였다. ①부터 ⑧의 문헌은 각각 독립된 문헌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연구' 79-8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린이와 가족 간의 관계에 따른 상황이 다각도로 조명되면서 대리보육이나 입양 등의 문제, 시설아동 등이 나타난다. 성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혼전상당, 성폭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아직 상황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한다거나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정재희(정재희 2003, 71)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김진숙, 강진구 2000, 102)를 토대로 독서치료를 위한 청소년의 정신문제 유형을 <부록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분류에서 1차적으로 적용된 기준은 청소년이라는 연령대이다. 2차적 분류기준은 대상으로서의 나와 내가 갖게 되는 타인과의 관계가 된다. 나 자신의 문제로서 학업문제, 성격, 비행, 정신건강, 성, 생활습관이 있다. 타인과의 관계로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의 가족관계, 학교에서의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있다.

2) 공공도서관 목록분석

- (1)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 모음/마음을 움직이는 책들 모음(경남 창녕도서관 2002. 4/2002. 9발행)

두 목록에 나온 상황은 거의 흡사한데 이것을 개념만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 자기에성 성격장애인,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 상처받은 아이들, 시설아동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 자폐아, 우울증 치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을 위한 책,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삶이 덧없이 느껴질 때 마음을 위로하는 책들, 자신을 돌이켜 보고 싶을 때, 정신적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순수한 감정을 되찾고 싶을 때, 감정이 메

말랐다고 느낄 때 도움을 주는 책들

이 목록에서의 상황은 분류개념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을 독서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해보면 1차적으로 어린이와 성인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2차적으로 성인대상의 상황은 정신상태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반사회성 성격장애자,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평범하지만 조금 지쳐있는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황은 상처받은 아이들과 자폐아, 시설아동들로 나누어 놓았는데 여기에 적용된 기준은 구태여 제시한다면 어린이의 정신적 상황과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성의 두 가지가 어린이라는 대상 하나에 적용되고 있다.

- (2)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 목록 1, 2, 3호(울산남부도서관 2003. 4 /2003. 9/2004. 4 발행)

이들 목록에서는 모두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는 책/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책,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책/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책으로 나누어 책이름과 지은이, 출판사, 청구기호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3호의 청소년 독서치료에서는 가족, 친구, 대인관계편, 학업, 학교진로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책에서 가족문제, 친구문제, 자신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상황분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성인 편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는

책과 치유하는 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편은 한 부분은 관계성을 기준으로 가족, 친구, 대인관계로 나누었으며, 나머지 한 부분은 진로와 관련된 상황으로 나누었다. 어린이 편은 공간과 관계성을 동시에 적용한 기준에 의하여 가족문제와 친구문제로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문제로 분류하였다.

(3) 마음 아픈 이들은 남구도서관으로 오세요.(부산남구도서관 2004. 4 발행)

어린이 편, 청소년 편, 성인 편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서 상황을 다시 세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세 편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어린이편

나, 일반가족, 특수 및 위기가족, 친구삼기,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자신이 없어요, 책읽기가 싫어요

• 청소년편

문화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역사지식보다 역사의식,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십대의 감수성을 길러주는 책

• 성인편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책,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책

역시 1차적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나눈 것이며, 성인 편과 청소년 편에는 특별히 적용된 2차적 분류기준이 없다. 어린이 편은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해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한 상황과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나, 자신이 없어요, 책읽기가 싫어요가 해당되며, 후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반가족과 특수가족으로,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친구삼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로 분류된다.

(4) 상황별 독서목록 - 아동·청소년편 (한국도서관협회; 1999)

우리나라 최초의 상황별 독서목록인 이 목록에서는 우선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입장이나 감정 상태, 혹은 심리적 변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기본적인 상위 분류지로 4개의 상황을 설정하였다. 즉 심리상태나 욕구에 따른 상황, 시간과 공간적 상황, 자아의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 지적인 관심이나 주제, 호기심 등과 관련된 상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인 4개의 큰 상황 아래 14-5개 정도의 하위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2) 독서치료 관련 강의자료에 나타난 목록

(1) 부산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독서치료사 과정의 독서치료 유형별 도서 목록⁴⁾

친구사귀기, 자아존중감, 성취감, 부모님과 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책아 친구하자, 배려할 줄 알아요(이기심, 욕심치료), 잠이 안와요,

4) 문경애 부경대학교 독서치료 진행자 작성.

자연사랑, 병원이 무서워, 좋은 습관 모두 11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아존중감, 성취감, 잠이 안와요, 좋은 습관 등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있고, 나와 타인의 관계로 친구사귀기, 부모님과 사랑이나 가족간의 사랑 등이 있다.

(2) 울산남부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2004 상반기)⁵⁾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아존중감 형성,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해, 형제간에 대한 이해, 맞벌이 가족의 상황, 이혼재혼 가정에 대한 이해, 특수상황의 가족 -학대가족, 친구에 대한 이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불안 및 두려움의 감정에 대한 이해, 정서장애 문제에 대한 이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이해, 성편견 문제와 직업의식에 대한 이해 이 프로그램의 작성자인 이기명은 상황설정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문제와 고민을 크게 12가지의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이 상황은 어린이들의 문제를 단편 단편으로 다루는 상황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처를 받는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즉 아직까지 자아의 개념이 완성되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설정이 이루어졌다. 이의 일환으로 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마지막에는 성편견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 까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는 형태의 상황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나 문제가 단 순히 본인의 책임, 본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데 대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상황설정과 분류기준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를 잘 짚은 근거라고 본다.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가족부터 점차 사회 속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상황설정은 분류 전개 원리에 있어서의 복잡성 증가의 순(順) (Principle of Increasing Complexity) 원칙 (노정순, 1979, 29)이 적용된 것이다.

(3) 경남 양산도서관 독서치료교실 상반기 프로그램 계획서⁶⁾

일상의 벽, 마음의 상처, 아이들의 아픔, 부모/부모역할, 결혼과 이혼, 여자와 남자, 딸/여성의 자아, 가부장 사회 모두 8개 범주로 나뉘어진 이 상황은 아이와 성인으로 대별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 혹은 관계성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특히 여자의 아픔이나 정체성에 관한 것이 많다.

(4) 부산 남구도서관 독서치료교실 계획서⁷⁾
2003년 하반기 부산남구도서관의 독서치료 교실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강의 목표는 독서

5) 담당사서 이기명 작성.

6) 김수경 독서치료진행자 작성.

7) 김수경. 2004.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66-267.

치료 서지목록 상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2003년 - 목표

가부장 사회에서 상처받은 여성의 주체성 찾기,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부모와 조부모, 성과 사랑, 가정주부에 대한 이해, 한국남성의 정체성 형성과정, 아이는 행복할까?, 사랑의 본질과 정신분석학, 마음의 상처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 수줍음을 극복하는 대인관계, 가족의 기원과 가족 내의 아버지의 역할, 가족 내의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와 역할이해, 여성의 자아찾기

2004년 -상황

일상의 벽, 딸/여자의 자아, 여성, 결혼과 이혼, 아이들의 아픔, 왕따, 부모/ 부모역할, 마음의 상처, 화, 가정폭력, 성폭력, 가부장사회 담당자인 독서치료 진행자 김수경은 이상과 같은 상황설정의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부들의 마음상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공통적인 영역으로는 배우자 관계, 가족 관계, 대인관계, 경제 문제, 가사노동 문제와 건강문제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시 주부들의 스트레스는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 작업수행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를 들 수 있다. 사람의 생활환경, 특히 가정 생활의 모든 영역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당자의 말과 연구자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도서관의 강의계획서에 나

타난 목표 혹은 상황을 분석해 보면 2003년에는 우선 여자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는 여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가정 생활환경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관계성에 의하여 남자, 아이, 부모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여자 자신의 문제를 보다 더 조명하면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에서 오는 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데서 기존 다른 목록과 차이를 보인다. 즉 여자라고 하는 주체를 놓고 여자 자신의 정체성과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여자가 갖게 되는 상하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여성성과 이에 주어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부장사회의 굴레 등을 풀어놓고 있다.

4.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설정과 분류체계

4. 1 상황설정과 분류기준 분석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을 다치게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상담사례와 최근에 발행된 공공도서관용 독서치료용 독서목록, 독서치료 관련 강좌에 나타난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상담사례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상황은 가족과의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학업이나 학교부적응 혹은 진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남자와 여자의 상담 건수는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고, 상담내용도 성격의 문제, 대인 기피성이나 수줍음, 학업이나 진로문제, 2차적 성장과 관련된 문제 등 비슷하다.

(2)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담을 많이 의뢰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라고 해도 남편이 부인 때문에 상담한다거나 남편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내용으로 한 것은 적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으로 인하여 겪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상담은 매우 많고 내용도 심각하다. 이와 함께 주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 및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3) 상담 사례분석에서는 어린이가 상담을 의뢰한 상황이 매우 드물었던 반면에 공공도서관에서 발행한 독서치료 목록이나 독서치료 관련 강의계획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문제가 없거나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직접 상담을 의뢰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상황을 여러 공간에서 지켜보는 성인들이 의도적으로 독서치료 대상으로 그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 의한 상황이다. 즉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파생되

는 상황, 가족 외의 타인과의 관계로서 친구, 동료, 연인, 사회와의 관계 등에 이르는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5) 나에 대한 이해나 나 자신의 문제 상황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본인의 성격, 정서 상태, 가치관, 약물이나 알콜중독, 질병과 죽음 등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상황들이다. 특수상황을 지목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이해한다거나 심리학 종류의 책을 읽도록 하는 말하자면 독서치료의 총류에 해당되는 일반적 상황을 가장 상위에 배정한 목록도 많이 보이고 있다.

(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상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새가정, 복합가정, 역기능가정, 보육시설, 위기가족, 특수가족, 맞벌이 부모, 폭력부모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가정에서의 여러 상황은 물론이지만 여자 자신에 대한 이해 혹은 여자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상황으로 제시한 경우도 많다.

(7) 공공도서관 목록이나 강의계획표 등에 제시된 상황들은 연령을 분류기준으로 적용하여 구분한 것이 가장 많다. 또한 간혹 어린이나 주부를 집중적으로 다룬 목록이 있다. 어린이나 성인 대상의 목록에서 모두 가벼운 스트레스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 혹은 알콜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가족, 타인, 사회의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상황을 전개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요컨대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공간성과 나, 가족, 타인으로 넓혀가는 관계성을 구분원리로 적용시키면서 이들을 확연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4. 2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설정과 분류체계 안

연구자는 전편 논문(한윤옥 2003)에서 성별과 연령을 1차 기준으로 하여 대구분을 한 후 2차 기준으로 사회조직에서의 공간을 근거로 가정, 학교 및 직장, 사회로 중구분하고 3차 기준으로 공간에서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세구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상담사례 및 독서치료 관련 강좌, 공공도서관 목록 등에 나타난 현상적 상황에 적용시켜 분류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황을 분류하는데 기본으로 사용된 특성(Characteristic)과 조합 및 배열순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에 가장 적절하도록 유의한다.⁸⁾ 분류원칙(Canon of Classification)에 유의하면서 독서치료 현장에서 나온 생산물 - 공공도서관의 목록 및 교육기관의 강의계획표 등 - 의 현장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본 연구에서의 분류특성은 연령, 성별, 공간, 관계성이다. 성별은 필요에 따라 적용하며, 공간과 관계성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복합적으로 적용

할 수도 있다. 또한 이상의 분류기준을 적용시키기에 앞서서 총류를 배치함으로써 인간심리의 종합적인 이론과 독서치료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며, 각 류(類)의 구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즉 해당되는 류의 최상위인 유개념(類概念)에는 하위 종속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황을 설정하도록 하고, 하위에 배치되는 동위분류체들은 가능한한 상위개념을 누락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망라(Exhaustiveness)의 원칙(노정순 1979, 24-25)이 지켜지도록 한다.

(2) 각 류의 구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학동기의 아동, 10대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남자와 여자를 하위 배치한다. 이것은 전편 논문에서 성별 우선 분류를 제안한 것과 다르지만 실제로 상담한 사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볼 때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여자 특히 주부의 문제가 훨씬 많고 심각함을 고려한 것이다. 요컨대 어느 경우이나 남녀를 구분하여 상황을 분류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를 들면 성인을 위한 독서치료 상황별 독서목록에서는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이다.

(3) 2차적으로 공간기준을 적용한다. 가정, 학교 및 직장, 사회로 공간을 확대시키면서 분류를 전개함으로써 유용한 배열순서의 원칙(Helpful Sequence)이 지켜지도록 한다. 또한

8) 분류표의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원칙과 기준을 분류학자는 'Canon of Classification' 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분류목적에 적합한 특성 및 특성 조합과 배열순서의 원칙은 특히 관련(Relevance)의 원칙과 관련순서(Relevant Succession)의 원칙을 말한다(노정순 1979, 17-23).

각 강목의 최상위인 유개념에는 해당 강목의 하위 종속개념이 모두 포함되는 상황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서 망라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한다.

(4) 3차적으로 관계기준을 적용한다. 2차적 분류기준인 공간에서의 상하관계, 대등관계에 따라 분류를 전개시키도록 하며 모든 관계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즉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나와 가족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전개함으로서 유용한 배열 순서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한다. 이것 역시 각 세목별 최상위에는 해당 하위 세목의 모든 성격을 포함하는 개념을 배정한다.

이상의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상황을 설정하고, 십진 분류식으로 전개한 분류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00 총류

010 인간에 대한 이해

020 심리학에 대한 이해

030 신학 및 종교에 대한 이해

040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해

050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해

100 소아(5, 6세 ~ 12, 13세 아동기)

110 아동에 대한 이해

111 아동 심리학/정신병리(성추행 등의 문제 포함)

120 아동의 마음 상함

121 정서적 결함

122 신체적 결함(외모)

130 가정

131 가정에서의 나

132 복합가정

133 역기능 가정

134 결손가정

135 몹시 빈곤한 가정

136 시설(고아원 등)

140 가족관계

141 부모와의 관계

141.1 폭력부모/알콜 중독 부모

141.2 맞벌이 부모

142 형제와의 관계

142.1 혼자인 경우

142.2 새로운 형제가 나타나는 경우

143 친인척과의 관계

150 유치원/학교/사회

151 유치원/학교/사회에서의 나의 문제

151.1 성격/정서에 따른 나의 문제

151.2 인지능력/학업능력에 따른 나의 문제

152 교사와의 관계

153 친구와의 관계

153.1 친구에 대한 심한 소유욕

153.2 왕따 당하는 아이

164 이웃과의 관계

164.1 국가와 세계

164.2 자연과 환경

200 청소년(12, 13세 ~ 19세)

210 청소년에 대한 이해

9) 동위분류체 내의 항목들의 순서는 유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양증가의 순(Principle of Increasing Quantity), 복잡성 증가의 순(Principle of Increasing Complexity), 발생의 순(Principle of Later-in Time), 진화순(Principle of Later-in-Evolution), 인접순(Principle of Spatial Contiguity), 알파벳순(Principle of Alphabetical Sequence)과 같은 것이 있다(노정순 1979, 28-34).

- 211 청소년 심리학/정신병리
- 212 청소년의 정체성
 - 212.1 청소년의 성과 사랑(첫생리, 몽정, 자위, 성폭력, 음란사이트)
 - 212.2 성격과 정서(수줍음과 부끄러움/외로움/외모)
 - 212.3 청소년의 건강(질병, 정신건강, 죽음, 약물중독)
- 220 가정
- 221 가정에서의 나
- 222 복합가정
- 223 역기능 가정
- 224 결손가정
- 225 몹시 빈곤한 가정
- 226 시설(고아원 등)
- 230 가족관계
- 231 부모와의 관계
 - 231.1 폭력부모/알콜 중독 부모
 - 231.2 맞벌이 부모
- 232 형제와의 관계
 - 232.1 혼자인 경우
 - 232.2 새로운 형제가 나타나는 경우
- 233 친인척과의 관계
- 240 학교
- 241 학교에서의 나의 문제
 - 241.1 성격/정서에 따른 나의 문제
 - 241.2 인지/학업능력에 따른 나의 문제
 - 241.3 진로문제
- 242 교사와의 관계
- 243 친구와의 관계
 - 243.1 동성친구와의 문제
 - 243.2 이성친구와의 문제
 - 243.3 왕따 문제
- 250 사회
- 251 사회속의 나
- 252 이웃과의 관계
 - 252.1 국가와 세계
 - 252.2 자연과 환경
- 300 성인(20세~65세)
- 310 남성 심리학/여성심리학
- 320 성 정체성(성 역할, 자아 존중감)
- 321 가정주부의 역할
- 322 직업여성의 역할
- 323 남편/아내로서의 역할
- 324 부모로서의 역할
- 325 일상의 벽
- 330 성과 사랑
- 331 남자와 여자의 차이
- 332 사랑의 기술
- 340 성격/정서
- 341 성취감
- 342 마음 상함
- 343 대인관계(수줍음, 외로움, 외모)
- 350 건강(질병, 정신건강, 죽음, 약물중독)
- 351 육체적 질병
- 352 정신적 질병
 - 352.1 우울증
- 353 자살/가족, 친지의 죽음
- 354 알콜 중독/약물 중독
- 360 경제
- 361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문제
- 362 재테크/주부의 경제활동/가사분담
- 370 제도적 문제
- 371 결혼과 이혼
- 372 제도에 대한 법률상담

- 380 가정/가족관계
- 381 가정에서의 나
- 382 배우자와의 관계
 - 382.1 사랑과 관심의 문제
- 383 부모와의 관계
 - 383.1 시부모와의 관계(고부갈등 포함)
 - 383.2 친정부모와의 관계
- 384 자녀와의 관계
 - 384.1 부모의 역할
 - 384.2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 조부모
- 385 형제와의 관계
 - 385.1 시집 형제와의 관계
 - 385.2 친정 형제와의 관계
- 386 친인척 관계
- 390 사회
- 391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392 여성의 직업의식
- 393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상사, 동료와의 관계)
- 394 이웃과의 관계
 - 394.1 국가와 세계
 - 394.2 자연과 환경
- 400 노인(65세 이상)
- 410 노인에 대한 이해
- 411 노인 심리학/정신병리
- 412 노인의 마음 상황
- 420 노인의 건강
 - 420.1 육체적 질병
 - 420.2 정신적 질병(치매 포함)
 - 420.3 노인환자의 문제(간병하는 가족의 고통 포함)
- 430 죽음

- 440 노인의 경제
- 450 가정/가족관계
 - 451 가정에서의 노인
 - 451.1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가정
 - 451.2 자녀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 451.3 시설에서 사는 노인
- 460 사회
- 461 사회에서의 노인
- 462 친구와의 관계
- 463 이웃과의 관계
- 464 노인복지제도

이상의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에 적용된 실제적인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독서치료 및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을 총류에 배치하고, 다음에 연령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총류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심리학, 종교, 정신분석학 등을 배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후 전개되는 소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류의 총론부분에는 해당기의 인간이해를 배치하였다.

둘째, 아이가 글을 못 읽는 시기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독서치료는 불가능하므로 아주 어린 유아는 제외하고 학동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기에서는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가정에서 유치원, 학교, 사회로 확대하면서 전개하되 아직 사회적인 관계가 약한 시기이므로 이들 삶의 공간을 모두 한 항목으로 잡았다.

셋째,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포함된 시기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때이다. 주변의 여

러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반면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심리이해부터 정체성, 성과 사랑, 성격 및 정서, 건강 등 다각도로 상황을 설정하였다. 아직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여러 환경의 가정환경을 설정하였으며 학교, 사회에서의 관계도 모두 나로부터 출발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하였다.

넷째, 성인기는 인간의 일생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상하 및 대등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관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때인 만큼 상황설정을 다양하게 잡았다. 특히 이 시기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이다. 앞의 상담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부장 사회체제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미약하여 특히 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여자가 위치할 수 있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각도로 잡아 상황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노년기는 삶의 주도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휴식기로 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노인의 위치가 미약하며, 특히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노인들의 거취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건강까지 나빠져서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과 노인환자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활력있는 생활과 관련되므로 이 항목을 배정하였으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문학작품, 특히 신화와 같은 것은 인간의 심층적인 무의식과도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일찍이 스킷 펙과 같은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의 질병으로서의 악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지목하였다. 이것은 책읽기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격수양이나 교양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책을 어떤 상황에 읽느냐에 따라서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의 보완 또는 대체 요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는 바로 이와 같은 책읽기의 효용성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야로서 책을 무기로 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서가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 개발과 개발된 자료를 알려줄 수 있는 서지목록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수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데 봉사의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사서들이 책 속에서 혹은 자신들이나 이웃, 이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즉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명사로 표현하고, 이에 적합한 책들을 나열한 목록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목록에 있는 책들을 서가에 별도 비치하고 이용자들이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록들에 나타난 상황들과 자료가 대부분 비슷하다.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한 책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책, 가부장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갖는 상처, 아직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없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혹은 교사로부터 받는 상처, 자신의 성격이나 건강 문제로 겪는 고통 등이 그것이다. 한 도서관에서 작성된 상황과 책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아직 소수의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목록을 발행한 단위도서관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상처에 의한 상황들을 일정한 분류체계 아래 정리해 놓을 수 있다면 단위 도서관에서 목록을 만들 때 협동이 가능해지고, 그것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봉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가 도서관에서는 인간의 상처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나 도서관에서는 결혼한 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다 도서관에서는 폭력부모로부터 고통 받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개발하여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인 서지도 발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첫 시작을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조사하여 일정한 분류 체계 아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행한 방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상담사례를 조사하고, 각 도서관 및 교육기관에서 작성한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

나타난 상황을 조사하였다(3.1, 3.2 참고).

(2) 위의 조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독서치료 상황을 설정하였다(4.1 참고).

(3) 설정한 독서치료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원리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하고, 그 원리에 의하여 상황 설정 및 분류 체계를 고안하였다. 상황분류에 적용된 분류특성은 연령, 성별, 공간, 관계이다. 우선 연령기준에 의하여 소아용, 청소년용, 성인용, 노인용으로 류 구분하였고, 이것은 다시 가정, 학교 및 직장, 사회라고 하는 공간성을 분류원리로 하여 강 구분하였으며, 각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을 기준으로 하여 요목구분 하였다(4.2 참고).

(4) 총류에 모든 상황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항목을 배정하였다. 각 류의 상위개념에는 역시 해당 하위 동위분류체 개념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배정하였다.

이 연구결과 개발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의 상황은 연구 논문을 위한 학술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단위도서관에서 적용할 때에는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82 배우자와의 관계 382.1 사랑과 관심의 문제는 배우자와의 문제상황편/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등이다.

(2) 전 국민 대상의 상황별 독서목록을 계속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3) 개별 공공도서관들이 협동하여 각 류별로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도록 한다.

(4) 분류표의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Canon of Classification'에는 분화의 원칙, 관련의 원칙 등 많은 원칙이 있다(노정

순 1979, 17-72).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상황 분류원칙은 이러한 원칙을 모두 지킨 분류원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서 효용성이 높은 상황 분류원칙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정근. 2004a.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출판저널』(2004. 5), 148-149.

_____. 2004b.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火, 『출판저널』(2004. 7), 142-143.

_____. 2004c. 스캇 펙(M. Scott Peck)을 아십니까?. 『국회도서관보』, 41(6): 58-61.

_____. 2004d.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침체와 절망의 늪 혹은 불안의 시대에서 탈출하기. 『출판저널』(2004, 6), 140-141.

김수경. 2004.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43-272.

김진숙, 강진구. 2000.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개발연구 IV』.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네모도 아키라 저, 조재순 역. 2003. 『문헌세계의 구조』.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노정순. 1979. 『한국십진분류법과 콜론분류법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동아일보. 2004. 엽기살인 키운 타인의 벽, 7월20일.

성남시청소년상담실 자료집. 2003. 성남: 성남시청소년상담실(YMCA).

정재희. 2003. 『청소년의 상처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한윤옥 외. 1999. 『상황별 독서목록-아동, 청소년 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 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5.

_____. 2003. (도협컬럽) 도서관의 맞춤형 서비스 - 독서치료를 통하여 사서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서관문화』 44(5),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황금숙. 2003. 독서치료 교육현황과 문헌정보학의 역할.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201-223.

〈부록 1〉 불교상담개발원 자비 24 상담사례 분석표

범주	제목	신원	조회수
신행상담	SGI 국내 참가학회를 어떻게 볼까?	20대 여	279
	출가에 대해서?	10대 남	225
	출가하고 싶습니다	30대 남	212
	소계		716
	종교때문에 사랑은 포기?	30대 남	175
	종교가 다른 두 사람의 만남	20대 여	137
	소계		312
	업주가 깨져서 불안(신앙태도)	20대 여	237
	총계		1,028
성격/정서	제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	163
	제 소심한 성격을?	20대 여	145
	제 성격이 고민	10대 여	112
	좀더 밝은 성격이 되려면(시무록)	?	111
	자신감없는 제 성격(자신감, 피해의식)	?	163
	제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20대 남	164
	제 성격을 모르겠어요 1)	?	128
	제 성격을 모르겠어요 2)	10대 남	77
	평소(항상) 불안해요	10대 남	110
	사람이 미워하는 버릇	20대 여	141
	사람이 너무 밍습니다 1)	직장여성	68
	사람이 너무 밍습니다 2)	직장여성	87
	요즘 이상해 진것 같아요(화, 사람이 밍다)	주부	74
	저의 의견을 바꿀수 없어요	10대 여	70
	소계		1,613
	학교가기 싫어요	?	81
	동성을 좋아해요	10대 여	140
	소유욕이 강해요	10대 여	109
	소계		330
	남을 많이 의식해요 1)	?	115
	남을 많이 의식해요 2)	?	165
	발표하는 것이 두려워요 1)	학생	110
	발표하는 것이 두려워요 2)	학생	94
소계		484	
총계		2,427	
성/이성	직장상사의 성추행	30대 여	240
	밤마다 혼자 있으면 자위를	남	317

	제목	신원	조회수	
성/이성	자위끓는 방법은	남	196	
	소계		753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음란사이트를 보고	여	158	
	딸에게 성지식을 이야기할때 어떻게	여	83	
	첫 생리에 당황	여	104	
	소계		345	
	임신을 시켰습니다 1)	20대 남	278	
	임신을 시켰습니다 2)	20대 남	190	
	사권지 얼마되지 않아 관계를	20대 여	220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힘들게	20대 여	163	
	남자친구가 배려가 부족	20대 여	100	
	남자친구가 의심이 가요(남자가 나를 의심)	20대 여	137	
	종교와 성격이 달라서 이별을	20대 남	140	
	남자친구를 사귄수가 없어요	20대 여	139	
	왜 남자는 여자의 외모만 보나요	10대 여	126	
	그 사람을 잊을수 있는 방법	여	140	
	소계(이성관계)		1,633	
	총계		2,731	
	가정 생활	남편의 성격(짜증내는 남편)	여	174
		남편과 헤어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20대 여	326
남편이 점점 미워집니다		30대 여	310	
남편의 외도와 성관계의 관련이?		20대 여	354	
남편을 사랑하고 싶는데		20대 여	120	
남편이 한없이 미워요		결혼 3년차 주부	100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 싶어요		결혼 16년차 주부	93	
소계(남편과의 관계)			1,477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		남	132	
아내와 자녀 교육 방법이 달라서 다툼		남	78	
아내의 우울증		남	85	
소계(아내와의 관계)			295	
딸아이가 꿈인형을 빼네요(7세딸)		결혼 16년차 주부	129	
아들의 거짓말		?	157	
아이와 실랑이 하는것에 지쳤어요		30대 여	92	
부모님이 동생만 이빠해요		10대 남	172	
부모님이 간섭이 너무 심해요		10대 남	52	
부모님의 불화		?	63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싫어해요		20대 여	108	
소계(자녀와의 관계)			773	
인간다운 오빠를 원해요(남매)	10대 여	149		

	제목	신원	조회수
가정 생활	동생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말을 안해요	10대 여	42
	소계(형제관계)		191
	시택으로부터 따돌림	여	70
	소계(시택과의 관계)		70
	총계		2,806
교육/ 학업/진로	성공과 진로에 대한 걱정(막연한 불안)	고등학생	156
	진로를 어떻게 정하나(자격증 준비)	20대	105
	대학을 꼭가야 하나요?	?	93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할지 1)	?	83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할지 2)	?	93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할지 3)	?	83
	소계		613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요	20대 남	84
	친구가 왕따당하고 있어요	주부	57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주부	66
	딸아이가 친구들을 괴롭혀요 1)	주부	130
	딸아이가 친구들을 괴롭혀요 2)	주부	42
	아이가 맞고 들어왔어요	주부	51
	산만한 아이 때문에	주부	58
	소계		488
	구타하는 선생님을 어떻게	주부	51
	부부관계를 아이에게 들켰어요	?	156
	신체에 대해 궁금해 하는 딸아이	?	52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자신이 없어요 1)	10대 여	92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자신이 없어요 2)	10대 여	82
	소계		433
	총계		1,534
	대인관계	이런 친구를 여자친구로 해야 할까요	20대
친구들과 싸웠는데		?	94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 불안		초등생	119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초등생	94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요		?	83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20대 여	73
직장에서 친구가 없어요 1)		20대 여	50
직장에서 친구가 없어요 2)		?	54
직장에서 친구가 없어요 3)		?	172
직장이 종교가 달라서			90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115
편하게 직장생활하고 싶어요			78

	제목	신원	조회수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을 참을수 없어요		81
	왕따 너무 힘들어요		71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워요(대인공포증)		120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어려워요 1)		98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어려워요 2)		117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돕고 싶어요 1)		86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돕고 싶어요 2)		78
	키가 작아 고민이에요		73
	학교에 가기 싫어요		78
		총계	

K C I

〈부록 2〉 청소년의 정신문제 유형 분류표

<p>1. 가족</p> <p>1.1 부부간의 갈등/폭력</p> <p>1.2 결혼/재구성가정 적응문제</p> <p>1.3 부모/자녀관계</p> <p>1.4 부모의 자녀학대</p> <p>1.5 부모의 정신건강</p> <p>1.6 자녀의 패륜행위</p> <p>1.7 경제적 문제</p> <p>1.8 형제/자매 관계문제</p>	<p>2. 학업/학교부적응</p> <p>2.1 학습능력 부족</p> <p>2.2 학업성적/학습태도</p> <p>2.3 학습흥미/노력부족</p> <p>2.4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p> <p>2.5 주의산만/집중력부족</p> <p>2.6 학교중도포기</p> <p>2.7 등교거부</p> <p>2.8 규율준수</p> <p>2.9 학교풍토/교육제도에 대한 불만</p> <p>2.10 해외/귀국 청소년 적응</p>
<p>3. 비행</p> <p>3.1 가출</p> <p>3.2 폭력</p> <p>3.3 절도</p> <p>3.4 방화</p> <p>3.5 도벽</p> <p>3.6 성관련 비행</p> <p>3.7 음주/흡연</p> <p>3.8 약물오남용</p> <p>3.9 불량씨클/폭력조직</p>	<p>4. 정신건강</p> <p>4.1 신체화증상</p> <p>4.2 불안</p> <p>4.3 식습관 문제</p> <p>4.4 우울/무기력</p> <p>4.5 강박적 사고/행동</p> <p>4.6 자살</p> <p>4.7 자해행위</p> <p>4.8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p> <p>4.9 틱</p> <p>4.10 정신질환</p> <p>4.11 발달지체</p>
<p>5. 대인관계</p> <p>5.1 따돌림</p> <p>5.2 친구 못사귀</p> <p>5.3 친구사이의 갈등</p> <p>5.4 이성교제</p> <p>5.5 교사와의 관계</p>	<p>6. 성격</p> <p>6.1 소극적/과민한 성격</p> <p>6.2 의존적/우유부단한 성격</p> <p>6.3 완벽성향/경직된 성격</p> <p>6.4 충동적 성격</p> <p>6.5 자아정체감 문제</p>
<p>7. 성</p> <p>7.1 성정체감</p> <p>7.2 성추행/폭행피해</p> <p>7.3 성충동조절</p>	<p>8. 생활습관/태도</p> <p>8.1 컴퓨터/인터넷 사용</p> <p>8.2 소비생활</p> <p>8.3 약속위반/태만한 생활</p>